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政友會總裁爭奪戰

一

外로는 滿洲事變, 內로는 二·二六, 五·一五等 事件이 잇슨 以後 한갓 沒落의 一途를 밟어오던 二大政黨의 하나인 政友會는 鈴木總裁의 辭任以來 四頭政治로써 艱辛히 黨을 統率해오더바 四代行委員中의 二大實力者인 鳩山, 中島의 兩派는 마침내 總裁椅子를 圍繞하고 深刻한 軋轢抗爭을 持續해오더니 結末에는 일직이 日本政黨史上 그 前例를 볼수업던 『總裁公選』을 來二十日 黨大會를 열고 選擧決定하기로 되엿다함은 紙上報道와 갓거니와 이와가티 公選에 依하야 總裁를 決定하게 되매 對하야는 公選을 主張한 鳩山氏는 『二十年來의 主張』이라고 하고 中島氏는 『前에 업던 醜態』라하야 兩派의 軋轢은 더욱 激化되므로 果然 二十日에 豫定대로 公選이 擧行될른지는 아직도 疑問視되는 點이 엇지안흐나 如何間 今日까지의 情勢로 보아서는 特別한 突發事態가 出現하기前에는 公選이 執行될것으로 볼수밧게 업다.

二

鳩山, 中島 兩氏의 對立激化는 前者가 政黨現狀維持者요 後者가 新黨主唱者인 以上 또한 不可避한 必然的 現象으로 볼수잇다면 그 解決方途는 公選에 依하는것도 亦是 一方便이 될수잇다 그러나 兩者의 抗爭이 어떠한 指導方針에 對立이 잇다든가 或은 國策意見의 相違에 原由한것이 아니요 究極 政權에의 未練에서 나온것임에도 不拘하고 表面으로는 兩者가 스스로 愛黨에서 나온 老婆心의 發露라고 自應主張함에 對하야는 實로 嚬蹙하지 안흘수 업다.

所謂大政黨의 總裁의 地位를 相爭하면서도 現下의 諸政策 卽 大陸政策 政界政策 政治行政改革 統制經濟問題 特히 國民의 政治에의 再組織方針等 朝野의 中心題目에 關한 國策的 爭點을 明示하지 안는다는것은 政治家의 良心의 缺乏을 意味하는것인 同時에 이 紛爭이 單純한 個人榮譽 奪取의 目的으로 한다는 事實을 暴露하는것이다.

三

政友會의 分裂은 거의 必然的 結果로 볼수잇게되엿다. 鳩山氏가 當選된다는 境遇에 反鳩山派가 分裂하게 될것은 中島氏가 言明한바이오 中島氏가 當選된 境遇에는 鳩山氏는 忠實한 黨員으로 中島氏에 奉仕하겟다고 하엿지만 事實에 잇서 鳩山派全部가 그러케되리라고는 보기어려운까닭이다.

이러한 危險이 잇는 까닭에 長老會에서도 公選을 그만두고 『候補者의 單一化』를 圖하라고 進言한 모양이나 代行委員을 爲始하야 顧問, 長老, 幹事等 執行機關이 確然하게 兩派로 對立한 以上 各機關의 協力에 依한 『候補의 單一化』는 不可能한일이다. 이와가티 公選에 依하든지 안하든지 紛紜은 免할수업게된 政友會의 現下情勢는 總裁公選은 가장 得策한 處事라 할것이다. 多數가 반드시 正當한것은 아니겟지마는 이것을 否定한다면 結局 獨裁頭政治를 讚揚할수밧게 업게된다. 또 公選이 나뿌다는것은 前例가 업다는것뿐인데 會則에 公選이 規定되어 잇슬뿐아니라 外國에서는 公選에 依하야 成績을 나타내고 잇는터이다 그리고 公選의 結果로 分裂하게되다면 이것은 結局各其歸着할 곳에 歸着한것으로 그 存在가 闡明하게될것이므로 兩派가 모두 반드시 惡影響을 與하리라고는생각되지안흐며 環境에 따라서는 이것을 契機로 沒落되는 政黨分野에 新局面이 展開될른지도 알수업다.

漢口進攻作戰開始!
第三國船避難要請
蕪湖、湖口間揚子江流域에서
海軍特務部談發表

【上海十一日發同盟】 海軍特務部는 漢口攻擊作戰에 關하야 十一日當局談으로써 如左히 發表하엿다

帝國海軍은 今日로써 漢口에의 進攻作戰을 開始한다 湖口附近으로부터 蕪湖附近까지 인제 作戰區域으로 됨으로 第三國艦船의 退避要望을 艦隊長官으로부터 谷公使를 通하야 各國에 通告하엿다

外務當局도談話發表

【上海十一日發同盟】 蕪湖上流漢口方面作戰行動에 關하야 我現地外務當局은 十一日午後六時 如左히 談話를 發表하엿다

京漢線方面의 我軍作戰行動이 進捗됨에 伴하야 帝國海軍의 作戰行動도 蕪湖上流揚子江에 옴기게되엿는데 右의 境遇에 第三國艦船의 不幸한 事件이 發生함을 避하려는 帝國海軍側의 希望에 基하야 谷公使로부터 左의 趣旨의 書翰을 各國大公使에게 日高總領事로부터도 또 右谷公使의 書翰을 在滬各國總領事館領事에게 傳達하엿다

一、現在 蕪湖로부터 上流湖口에 이르는 揚子江流域에 第三國艦船은 散在하여 잇스리라고는 밋지안는바이지마는 同區域에는 今日以後 激戰場으로 될른지 모르므로 一切의 第三國艦船은 我艦隊司令長官이 作戰上支障이 업다고 認定하기까지는 右區域에 侵入치말것

二、右地區에 現存하는 第三國艦船이 잇다면 그艦船名, 所在地를 至急通知하기바라며 또 右艦船은 至急 蕪湖로부터 下流또는 최신 上流인 安全地帶에 避難할것

三、現在湖口보다 더 上流에 잇는 第三國艦船은 作戰進行에 伴하야 漢口上流에 避難할것 또 湖口上流에 現存한 艦船에 對하야는 그艦船名 所在地 漢口上流에의 避難豫定等을 至急通知하고 艦船의 移動狀況을 速히 通知할것

等에 關하야 我方의 要望을 述하고 또 上述한 要望은 日支交戰으로 第三國艦船에 對하야 不慮의 災難이 波及되고 따라서 第三國과 日本과의 사이에 不愉快한 事故를 업게하려는 我艦隊司令長官의 眞摯한 希望에서 나온것이므로 關係國에서도 友好的態度로써 自發的 協力을 與하기를 希望한다는 意를 通告하엿다

天皇陛下 水稻를御親栽

【東京電話同盟】 天皇陛下께옵서는 農民의 勞苦를 軫念하옵시와 例年 吹上御苑에 水稻를 御親栽하옵섯스므로 非常時局下의 今年에도 十一日土曜午後의 御餘暇를 御利用하옵시사 午後二時부터 水田에 납시와 服部御用掛 以下 側近者를 御相對로 約一時間에 亙하옵시와 御移秧하옵실터이다

炎熱砂塵을무릅쓰고 殘敵을掃蕩하는 〇〇部隊 (隴海線方面)

蔣의苦憫相을 UP通信報道

【紐育十日發同盟】 十日紐育에 達한 UP上海電은 日本軍의 漢口進擊을 압두고 蔣介石은 今次紛爭勃發以來 重大한 딜렘마에 陷한것을 左와 如히 報道하고 잇다

殺到하는 日本軍을 阻止하기 爲하야 蔣介石은 마침내 直系軍을 總動員하는가 아니하는가의 問題에 直面하여 잇다 直系軍을 動員하야 敗戰하게되면 其後의 自己의 地位가 顯著히 脆弱化하게될것은 必至이며 또 直系軍을 動員치 안는다면 南支各省及 四川軍이 國民政府로부터 分離할 念慮가 매우만타 當地軍事專門家의 談話에 依하면 先般來約十萬人의 四川軍이 廣西軍과 함께 前線防備의 任에 當하엿든바 過去一個月間의 四川軍은 그의 前線에 나오지 안헛다 어가리 四川軍이 最近突然히 前線出動을 中止하여 버린 原因은

一、自己直系軍의 保全에 汲汲하고 잇는 蔣介石의 態度에 不滿을 抱懷하고 잇는것

二、蔣介石이 主力을 漢口로부터 撤退하려는 模樣이 기때문에 四川軍은 四川省을 스스로 防衛치안흘수업게된것

이란 二點이다 蔣介石의 威令이 四川에 對하야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잇는것은 過般 蔣介石이 劉湘의 死後 張群을 四川省主席에 任命하려하다가 失敗한 事實로 보아도 明白하다

國府分裂原因 UP通信報道

【紐育十日發同盟】 最近繼續하는 敗戰으로 支那軍內部의 軋轢은 漸次表面化하고 잇는바 十日UP上海電報는 支那軍의 內部分裂의 有力한原因으로서 大本營政治

巢縣無爲間의 水陸交通路確保

【南京十一日發同盟】 安徽省巢縣, 無爲間의 山岳地帶에는 約二個師의 敵遊擊隊가 蟠居하야 잇기때문에 裕溪鎭方面으로부터 運漕鎭을 經由하야 巢縣에 至하는 運漕河水路는 甚히 危險하엿든바 去八日頃부터 陸上은 佐野部隊가 掃蕩하야 이에 協力하고 水上은 櫻井部隊가 水路를 開拓하면서 前進한結果 昨十日에 이르러 裕溪鎭과 巢湖間의 水路는 完全히 我軍에게 確保되엿슬뿐만아니라 水路는 다시 巢湖를 橫斷하고 그西岸에 至하야 水上部隊는 물결을헤치고 巢湖上을 疾驅하고잇다 一方 裕溪鎭을 基點으로한 淮南線도 我鐵道隊가 全力을다한 修築作業에 依하야 近間完成되게되므로 淮河와 巢河의 開通과 함께 이 方面의 水陸兩交通路의 利用度數는 極히 頻繁하게되엿다

滿支產業視察一斑
石炭王國의 撫順
歷史와 產業의 都市奉天
⑤ 李勳求

五、奉天과 撫順中心地帶

新京에서 三百餘粁를 南行하면 有名한 奉天에 當到한다 奉天을 詳細하게 紹介하는것은 本論의 目的이 아니다 다만 그 產業的 價値를 考究하여 보고저 하는바이다 奉天은 六條의 鐵道가 이곳을 中心으로 放射하고 또 渾河의 舟運까지 加하게 됨으로 滿洲交通의 中軸地點이요 게다가 昔日부터 有名한 遼東七百里라는 그 야말로 滿洲大平野의 中心都市다 그러므로 全市는 地上無限의 發展性을 띄고 前途가 매우 巨大하다 또 新興滿洲國의 商業, 工業, 其他實業의 一心臟部를 形成하고 잇다.

이 奉天市의 歷史도 어와가든 都市로서의 由緖가 기픈바가 잇는데 高句麗時代나 渤海時代는 史乘이 遼遠함으로 不問에 附한다고할지라도 興京地方에서 愛親覺羅氏가 勃興하자 淸의 太祖 "누루하치"는 이곳에 都를 定하고 天命十年에 遷都를 實行하엿다 當時의 名稱은 瀋陽을 盛京이라고 改稱하고 明의 四百諸州征服의 策源地를 삼엇든 것이요 朝鮮關係로 본다고 하여도 丙子胡亂에 南漢의 城下盟을 締結한後 所謂斥和臣으로 有名한 三學士의 殉節地도 이곳이다.

奉天의 市街는 新市街와 舊市街(城內)로 區分할수가 잇는데 新市街는 從來滿鐵의 附屬地로 滿鐵에서 莫大한 資本을 投下하야 數十年동안 經營하여 왓다 浪速과 千代田의 二大街는 商業의 가장 殷盛地帶다 商埠地는 從來의 奉天城內와 附屬地의 中間에 介在한 곳으로 各國의 領事館及居留民이 雜居하고잇다 舊市街는 奉天城內를 指稱하는데 美觀의 宮殿을 中心으로 하야 方形의 內城과 및 이것을 圍繞한 稍圓形의 邊城으로 되여잇고 滿人의 商街는 殷盛한 狀況을 볼수잇는데 元來 商業術에 長한 滿人만치 相當한 大規模의 商店會社가 잇다 朝鮮人은 十間房과 및 西塔等地에 만히 居住하고 잇는데 그 經濟力은 아즉 薄弱하고 商業도 殷賑하지못한편이다 奉天을 中心으로 그周圍에는 滿洲水田耕作의 發祥地로 多數한 우리 農民이 耕作에 從事하고잇다 奉天은 牡丹江이나 新京의 新興都市에 對照하여보면 老熟한 姿態를 現出하나 그러나 그 發展할 將來는 實로 無限大라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奉天으로부터 東北으로 約五六粁의 引込鐵道를 타고가면 撫順에 이르다. 이 撫順은 누구나다 잘 아는바와가티 撫順石炭의 產出地다 事實上 撫順은 石炭으로 維持되엿고 石炭으로 繁榮하는곳이다 이 撫順炭은 實로 高句麗사람들이 一千六七百年前에 陶器製造에 燃料로 使用하기爲하야 發掘하기 始作하엿다 그러나 其後 遼, 金, 元, 明, 淸時代에는 이와가튼 巨大한 富源이 地下에 埋沒되여서 누구한사람도 돌라보는사람이 업섯든것이다 露國은 滿洲侵略의 野望을 품은當時에 벌서 探掘에 着手하려고하다가 日, 露戰役에 日本의게 占領되엿고 戰後에 南滿洲鐵道會社의 손으로 經營되여서 近年에는 年產額 約八百萬噸에 達하는 世界에도 稀有의 大炭鑛이되엿다 이와가티 多擴으로 探掘하여도 約百年동안은 繼續하겟다는것만보아도 그 貯炭量의 尨大함은 可히알수가 잇다.

採炭設備에 잇서서도 實로 近代科學의 精粹를 綜合하야 膨大한 規模로 되여잇다 그리하여서 年純益金으로 平均約一千萬圓을 엇는다고한다 그리고 石炭一噸에對한 單價探掘費는 不過七十錢이라고하니 어엇지 驚歎할바가 아니냐 또 撫順以外에도 幾多의 炭田이 그附近에 散在하여 잇다.

見되엿다하니 그 巨大한 富源은 實로 더욱 可驚할바이다 市街의 建設도 滿鐵從業員中心으로 建設되여서 퍽 淸潔整齊하고 그 住宅地와가튼것은 한 理想鄕이라고 할수가 잇다.

撫順에는 朝鮮사람이 四千五百餘名이 살고잇다. 特히 撫順近傍에는 約六七萬의 朝鮮農民이 水田耕作에 從事하고 잇는것이다 渾河의 沿岸地帶에 貫流하고잇는 그리하여서 그들의 產出하는 米는 滿洲에서 米食住民의게 한그들의 經濟力은 亦是甚히 貧弱하여서 別로히 特書할만한것이 업다. 奉天과 撫順에는 朝鮮人의 小學校가잇고 特히 奉天에는 東光學院이라는 中學校의 母體가 成長發育하려고 가진苦難과 協力을하고 잇는것도 우리가 다잘알고잇는 事實이다. 이박게도 奉天과 撫順에 關한 材料는 實로 汗牛充棟이라 할만 資料이겟지만 얼마던지 엇더면 다 그러나 어만하고 其餘는 略하여둔다。

政友總裁問題
候補者單一化를 代行委員會에要望
砂田幹事長의苦肉策

【東京電話同盟】 政友會의 砂田幹事長은 十一日午後一時부터 芝三緣亭에 代行委員의 參集을 求하고 單一化의 說示에 基하야 黨의 各機關을 動員하야 努力한 經過를 逐一報告하고 總務顧問等諸君도 여며 鳩山中島兩派에 所屬하여엿는者가 만흐므로 和協工作에 對하야 有力한 協力을 엇지못한것은 甚히 遺憾이다 이以上은 黨의 最高機關인 代行委員會에서 誠心誠意, 和協의 方途를 講究하는것이 남어잇는 唯一의 길이라고 밋는다 고 候補者單一化의 說示를 도리어 代行委員에 警告하고 그善處를 强硬히 要望하엿다 此에 對하야 代行委員은 다시 意見交換을 行하엿스나 協議는 依然 合議되지 못하고 來十二日午前十時부터 三緣亭에 代行委員會를 開하고 再次 方途를 考究하기로 하고 同四時에 散會하엿는데 代行委員會가 거듭 決裂하는 境遇에는 和平의 길은 全然 閉塞되므로 自重的 空氣도 相當히 濃厚하다고 看取된다 따라서 어찌하면 代行委員會가 또다시 續會되지나 안흘까 想像된다

堀切氏
中島氏推薦狀發送

【東京電話同盟】 政友會中島派의 參謀長格인 堀切善兵衛氏는 十一日午後一時 所屬貴衆兩院議員全國支部代議員에게 『政友會總裁로서 中島知久平君을 推薦함』이라는 推薦狀을 發送하엿다 右推薦狀은 中島派의 代表推薦狀으로 指目된다

滿獨修交條約
一兩日中滿洲國에通告

【新京十一日發同盟】 滿獨修交條約의 獨逸側批准은 히틀러總統以下政府首腦가 地方巡遊로부터 九日夜 伯林으로 歸來함을 待하야 在伯林加瀨代表로부터 報告가잇섯다 然이나 獨逸側은 手續이 이미 完了되엿스므로 一兩日中에 批准을 마치고 滿洲國에 通告할豫定으로 이로부터 滿獨兩國間의 正常外交關係는 效力을 發生할터이다

敵船三百隻爆沈
決死的低空飛行으로

【南京十一日發同盟】 我海軍飛行隊前線部隊는 蕪湖對岸의 西方約五十키로 無爲를 中心으로 第二十軍長楊森麾下의 二、三個師가 集結中임을 認定하고 此에 爆擊을 加한後 다시 無數의 水路에 依하야 移動中의 敵舟船群을 發見하고 決死的 低空爆擊을 行하야 戎克三百隻을 擊沈시켜 多大한 效果를 收하엿다

[illegible]

米亞細亞艦隊 警備配置變更

【華府十日發同盟】 米國亞細亞艦隊司令長官 야넬大將은 海軍省으로부터 艦隊의 警備配置에 關하야 [illegible] 오거스타號及 마블헤드號는 靑島에 二驅逐艦은 芝罘에 一驅逐艦은 比律賓에 配置 [illegible] 九日海軍省에 報告하엿다

鄭州는어떤곳?

【東京電話同盟】 十一日漢口로부터의 電報에 依하면 支那軍은 鄭州陷落이 切迫하엿스므로 드디어 同城內에 放火하엿다고 傳하는데 鄭州는 河南省隴海, 京漢兩鐵道의 交叉點이오 附近一帶는 廣漠한 平原으로 軍事上經濟上 極히 重要한 位置를 占하야 昨年十月頃부터 歸德, 開封과 함께 戰略的으로 我空軍에 依하야 猛爆을 受하엿다 同地는 人口約九萬五千이며 市街는 新舊二部에 分하야 舊市街는 西南北四門이 잇서 代表的支那都市를 形成하고잇다 城壁으로 둘러싸여 城壁內部의 穴居存在는 三千年代의 奇觀이라할것이다 新市街는 商業地區로 商業이 繁華하나 事變때문에 日本商品이 杜絶한 故로 破産商家가 續出하게 되엿스나 政府系四銀行을 爲始하야 紡績工場, 銀行等도 잇서 河南省의 金融中心이 되엿다 物產은 著明한것이 업스나 小麥, 棉花等 京漢線에 依한 出廻品이 豐富하야 事變前까지는 廿名內外의 邦人이 在留하여잇섯스나 撤去後 主人업는 鎖鑰은 皇軍의 入城을 待望하고잇슬것이다

漢口在住外國人도 避難準備

【上海十一日發同盟】 漢口市民의 前線으로부터 流入되는 避難民과 混亂의 極을 이르고잇는데 漢口在住의 外人도 이 無政府狀態에 매우 危險을 感하고 避難委員會를 組織하야 汽車數輛을 비러 香港으로 避難하고잇다 또 義勇隊를 組織하고 支那暴民에 對備하는 等 極度의 緊張을 呈하고잇다 그리고 外人居住者는 昨年十二月에 이미 一千餘名이 撤退하고 現在에도 一千二百名이 殘留하는데 그主要한 內譯은 英人八百 米人二百 獨人百八十 其他는 佛國人及蘇聯人이다

省長會議에三氏出席

十二日부터 三日間新京에서開

三河尖正陽關線이
第一線防禦陣
敵軍轉動配備에奔忙

【南京十一日發同盟】 我南下部隊는 開封攻略後 京漢線을 爆破遮斷하고 十日은 京漢線을 壓迫하야 鳳臺를 占領한 部隊는 繼續하야 正陽關을 攻略하고 西南方으로 進擊中이든바 敵은 이가튼 我攻勢를보고 北方으로부터는 京漢線을 또 中支方面에서는 正陽關線을 西南方으로부터 突出하야 攻擊할것으로 判斷하고 속히 合肥南方의 三河尖으로부터 正陽關을 第一線防禦陣으로하는 同時에 十日頃 阜陽에 駐屯하고잇든 廣西軍을 南方으로부터 葉家集方面으로 移動케하고 湖南省項城附近에는 周[illegible]의 廣西軍을 配備하엿다

查證署名問題解決
爲先三船에查證交付

【東京電話同盟】 日蘇漁業船에 對한 蘇聯側의 查證拒否問題는 十一日에 이르러 蘇聯側의 領事代理의 署名으로 解決을 보게되엿는데 同日正午 日魯本社에의 電話에 依하면 滄船十三隻中 石狩丸、浦鹽丸은 이미 查證을 마추고 또 同日出帆決定의 藏王山丸도 同日出港을 急히 하고 잇서서 日魯側은 滄船十三隻全部의 即時出港要求에 對하야 函館蘇聯領事代理루노고書記生은 查證事務處理에 손이 不足함을 號訴하야 十一日中은 前記三隻外 查證이 困難한 旨를 回答해 왓다 그리고 東本部線蛤龍丸은 本國政府로부터의 訓令이 업스므로 航海證明書를 交付할수 업다는 旨를 通告해왓스므로 方今日魯側은 駐日代理大使에 對하야 至急查證事務를 處理하도록 거듭하야 折衝中이다

密雲을뚤코 軍事施設을空爆

【南京十一日發同盟】 我飛行隊는 十一日朝來 密雲을 뚤코 基地를 出發 ○○部主力○○機는 安徽省六安、商城、固始方面의 敵軍隊及軍事施設을 爆擊하고 他一部는 信陽方面의 偵察을 行하엿다

緬甸、雲南間의 鐵道敷設도近近實現

【香港十一日發同盟】 約一個月前에 開通한 緬甸雲南間의 自動車路는 目下全線을 鋪裝하는中인바 이것이 完成되는날에는 貨物의 輸送과 旅客旅行에 至大한 便宜를 주는同時에 國民政府가 雲南移轉後는 政治上軍事上極히 重要한 交通線이 될것인대 重慶來電에 依하면 일즉부터 懸案으로되여잇든 緬甸雲南間의 鐵道敷設도 近近實現되여 工事를 開始하게되엿다 緬甸側의 始發驛은 아즉 判明되지 안흐나 緬甸鐵道의 終端驛인 『미이트키이나』로될模樣인바 沿線에는 메콩, 가르빈等 兩河가잇스며 山岳地帶이므로 工事에는 相當히 長年月을 要할것인바 雲南鐵道以上의 大難工事로 觀測된다

臨時政府 駐魯辨事處新設

【濟南十一日發同盟】 北京臨時政府治安部에서는 山東省의 秩序가 回復됨에따라 同省의 地方治安의 時實에 鑑하야 駐魯辨事處를 新設하기로되엿는바 初代主任에는 羅寶泰氏가 任命될 方針이다

支那海關協定
兩政府間同時에實施

【北京十一日發同盟】 臨時政府는 去五月三日 日英間에 成立한 支那海關收入의 處理에 關한 協定의 趣旨를 履行하기로 決定하고 過般維新政府에 對하야 同時에 着手하자는 旨를 申出하엿든바 維新政府行政院으로부터 十日附로써 承諾의 回答이 잇섯스므로 이에 兩政府가 同時에 此를 實施하기로되엿다

靜脈注射用 ネオ.タンワルサン 驅黴砒素劑

二十五年의 光輝잇는歷史와 熟練된技術、完備된 設備에依하야 吟味精選된ネオタンワルサン은 專門諸大家의 推奬에依하야 年年그聲價가 益益노파진다

模造品에注意
驅黴成績의完璧과治療의完全과를期하는臨床家諸位는모두本劑를愛用한다

適應症
黴毒의 各期와 黴毒으로 이러나는各種의 隨伴症狀의 治癒와豫防에適함。
또脊髓癆、痲痺性痴呆、回歸熱、一般스피로헤ー데에因한 疾患、마라리아、鼠咬症、瘴氣熱 熱帶苺瘡等 에도 特効잇슴
또天疱瘡、扁平紅色苔癬、鱗屑疹等砒素劑應用의 모든 範圍에 良効잇슴

包裝
一號(〇•一五瓦) 二號(〇•三〇瓦) 三號(〇•四五瓦) 四號(〇•六〇瓦) 五號(〇•七五瓦) 大號(〇•九〇瓦)

또靜脈內注射不可能의患者에 適當한 皮下注射用 ミオ•アーセミン잇슴
또砒素劑와 交互使用에 適當한 蒼鉛劑ギフロン의 選用을願함

製造發賣元
第一製藥株式會社
本店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三丁目
支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
出張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十六番地
〃 奉天市大和區琴平町三番地
NTO

電話至急開通따라 時勢低落은必至

新抽籤分合해 六分强增加로

四五十圓程度의低落을未免

경성의 도시구역확장과 근대 도시로서의 놀라운발전을 하게 됨에따라 전화의수용은 놀라울 만치 늘어가고잇서서 해마다전 화기근으로 말성이 되던중인데 금년에도 새로운 가입지원자가 삼천여명에 달하엿는데 이가운 데 금십일일 경성중앙전화국에 서 엄정히 추첨한결과 본국 광 화문 룡산등합하야 팔백열아홉개 가 당첨되엿고 열개가 후보로써 발표되엿스니 실상은 팔백스물 아홉개가 새로나오게되엿다 공급이 수용에대하야 엄청난 현격이나게 만족을 주지못할때 는 그상품의가치가 오른다는것 은 가장평범한 이치이니 삼천 의 수용에 대하야 팔백의 공 급밧게 주지못하는 전화에 잇 서서도 이것은 응당 가치의등 귀를 초래하고 말것이나 원 칙적으로 지금까지 전경성부 민이가지고시퍼하는 전화본수가 삼천이넘는데다가 다만팔백개의 부족되는개수입량져 그만큼 전화 기근이 해갈되엿다고볼수잇다。 지금까지의 통계를조사해보면 본 국이 육천칠백오십육개며 광화 문이 삼천육백구십구개 룡산이 이천오십개로써이세곳것을 합하 면실로 일만이천오백다섯개 여 기에다가 금번에당첨된것이 팔 백이십구개면 약육분장이 증가 되엿스니

현재 경성전화시세를 살펴보 면 팔백오십원에서 팔백칠십원 까지로서 작년봄기에는 일천사백 칠십원에서 일천사백오십원까지 빗싸던것이 작년이때에 추첨에 일천사백개가 발표되고 지나사 변이일어나자 귀환하는 지나인 의 헐가방매로 갑자기 칠백원 까지 내렷다가 이것이 차차올 라서 구백원대에 이르게된것이 엿다 그러든차에 금번에 또전체의 육분장이 새로증가되엿스니 전 화값은 응당 변동되여서 사오 십원가량으로 떠러질 형세를보 이고잇다

中央電話局 加入課長談 『전화기근 의 소리가 라 전화값시 오르고 전화뿌 로커-의 부당한이익을 가저 와서 실제로 전화를 원하는 중소 상공업자는 전화의 은 택을 엇지못하는 경향이잇스 므로 될수잇는대로 전화시가 의조절을 도모하라고 새로히 만료수효의 가입을 시키고시 프나 재료의 등귀로 말미아 마 경비가 업서서 팔백여개 밧게못냇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아프로는 될수잇는 대로 만히가입시켜서 전화가 격의 균형을 도모하라합니다 실상 가설후 일개년이 경과 되지안흐면 이전을 못하게하 던것을 이년으로 연장시킨것 도 본의가 여기에 잇는것입 니다』

七月七日 北支事變一週年

聖戰의이날·京城府主催

諸般記念行事準備

武運長久祈願·記念講演等擧行

북지사변이 일어난후 벌써 일주년이 갓가웟스므로 경성부에서는 의 지컨은 장고하게하기로하엿 스므로 그준비에분망하고잇다한 다 당일은조선신궁(朝鮮神宮)압 광장에서 부민일동무운장구기원 제(武運長久祈願祭)를거행하는외 에 각학교에서는 그날아참에일 제히기렴식을 거행한후 부내생 도대표들로써 용산육군묘지(龍山 陸軍墓地)의 청결을 하게하고 각 애국단체에서는 상병장병(傷病 將兵)과 출정군인의 유가족을 위문하고 그날밤은 부민관(府民館)에서 기렴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라한다

變心情郞걸어 財産分配請求訴

도화분업는사람이 서울와서 소실을어더 그의돈으로 대금 업을경영하야 육천원을 모으고 아들까지 보후 돈만을 가지 고 또다시 다른여자에게로간 「쭈-」를 상대로한 재산분 배소송의 소장이 십일일 경 성지방법원민사부에 드러왓다 소장에의하면 원고 부내견지정 (堅志町) 송씨(宋氏)(女)는 대 정십사년 괴고인 경기도안성군 공도면웅교리(安城郡孔道面熊橋 里)유완능(柳完能)과 부첩관계 를 매젓는데 괴고는 송씨의집 에유하며 송씨의자본으로 축재 에 애쓴결과 소화십이년봄까지 양육천여원의 부동산을 작만하 엿다 그런데 괴고는 그해오월부터소 외(訴外) 김정렬(金敬烈)이라는 여자와 동거하며 소화삼년송씨 와의사이에 출생한 장남 남수 (南秀)를 돌보지안흠으로 송씨 는『애정이업서 갈라지는것은할 수업지만 그대의재산은 내자본 으로 가지모은것이니 반식난호 자』하야 괴고는 육천원중 이 천원을 지불한다고 승락하엿섯 는데 일년이넘어도 그게약을실행 하지안흐매 원고는 괴고에게서 이천원을 밧게하여달라는것이다

女子中等同窓會聯盟 今日結成式擧行

府民館에서千五百名이會合

장기전시체제하에 처하야 며 생활을개선하야 부인보국을 목적으로하는 경성녀자중등학교 동창회연맹(京城女子中等校同窓 會聯盟)은 그동안 총독부사회교 육과와 제일고등녀학교에서 결 성식준비에 분망중이든바 요지 음 전부정돈되엿스므로 명십이 일오전열시부터 부민관(府民館) 대강당에서 다음과가튼 순서에 의하야 식을거행하기로 되엿다 이날은 부내공사립십륙개 녀자 중등학교의 이만칠천여생중에서약 일천오백명이 출석하리이며 내 빈측으로는 남총독(南總督)이하 관계당국자 약삼십명이 임석할 터인데 당일 남총독은 일장의 훈화를할터이다 그런데 전조선 시자층견녀성이만명을 동원하는 이기관은 시국관계상 자못중대 성을 갓게되는것이다

式順 一、式辭 一、開會辭 一、國歌合唱 一、宮城遙拜 一、總督訓話 一、皇國臣民誓詞 一、默禱(武運長久) 一、決議宣言 一、祝辭 一、愛國行進曲 一、閉會辭

北支招聘의 支那語講師發令

일지친선을위한 지나어의 보 급을 도모하기위하야 총독부에 서는 중등학교이상의 학교에지 나어강좌를 신설하기로되여 지 나어강사의 파견을 신민회(新 民會)에 의뢰중이엿섯는데 교육 부(敎育部)편수국으로부터 김보 천(金輔天)(三五)낭은도부랑(郎殷文)(三五)양씨가 추천되여서 경성에오 게되고 십일일부로 총독부에서 각각 발령되엿다 즉낭은문씨는 경성고등상업 수원고등농림 경 성공업의 촉탁으로 김보천씨는 경성법학전문 경성의학전문의촉 탁으로되엿다

司法書士組合創立

【麟蹄】 린제읍내에는 종내오개 소의사법서사사무소(司法書士事 務所)가분립하야 잇섯는데 지난 십일부터 합동하야 사법서사조 합(司法書士組合)을 창립하고사 업을통제하기로되엿다

스포-츠

全延專蹴球 今日午後京城蹴球

普專이優勝 高專排球리그戰에

安井氏歡迎庭球 紅白戰으로擧行

對大阪蹴球戰에 醫專軍勝捷

世界蹴球續報

今日의運動

日曜講話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예수와어린이 金觀宇氏

◇天然町石橋敎會 午前十一時 基督敎의將來 諸觀範氏 午後八時 國寶 朴淵瑞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眞理의探求 朴聖權氏 午後八時 未定 姜泰熙氏

幸運의八二一九名

申込者三二一八名中

電話至急開通當籤者發表

십삼년도경성중앙전화국전화지 급개통추첨(電話至急開通抽籤) 은 십일일오후두시부터 동전화 국에서 경찰관신문기자립회아래 집행하엿는데 삼천이백십팔명의 신청자중에서 팔백이십구명의 우선 개통자(優先開通者)를제하고 좌 기팔백오십팔명이 행운의당선을 하엿고 이밖에 열명의후보자를 정하엿다. 추첨에빠지지못한신입 자에게는 신입보증금으로 징수 한 일백오십원은 불일내로반환 하게되엿고 당선자가납부할 남 어지돈 일백칠십원은 공사판게 기타로 얼마후에 납부등지서를 보내기로되엿다

本局

▲一二三八 奧山和唐 ▲一〇一八 寺田良之助 ▲四一一 岡崎辰次郞 ▲三八六 內田可年 ▲一二六一 西村つぎ ▲五二三 林靜雄 ▲五 三五 森脇敏子 ▲一一八八 矢野千城 ▲二六四 具穩花 ▲一 一四八 金鍾彧 ▲六五九 熊谷寬一 ▲七四四 尹鍾濂 ▲一三 一 高田馥吉 ▲一九 水野俊治 ▲一一七一 小松光安 ▲七二五 進藤鼎 ▲一四一 吉田スズエ ▲三四〇 佐野鶴雄 ▲八二〇 新井香 ▲六五七 門司立志 ▲三 二六 永井健吾 ▲五二三 北澤勝 ▲一二五 尹日俊 ▲五一〇 朴炳憲 ▲三二一 森辰男 ▲八九九 陽山米太郞 ▲五六〇 佐八 米澤久市 ▲四八 岡原健助 ▲一一六一 波多野長政 ▲七二 六三 李鍾寬 ▲一〇三三 辻正顯 ▲二 八二 藤原清三 ▲六五〇 田丸

빈대전멸

急告!

빈대전멸 팔진미 (南京虫八珍味) 대성공 만세!!

빈대즉사전멸!

빈대전멸분팔진미

—세계적신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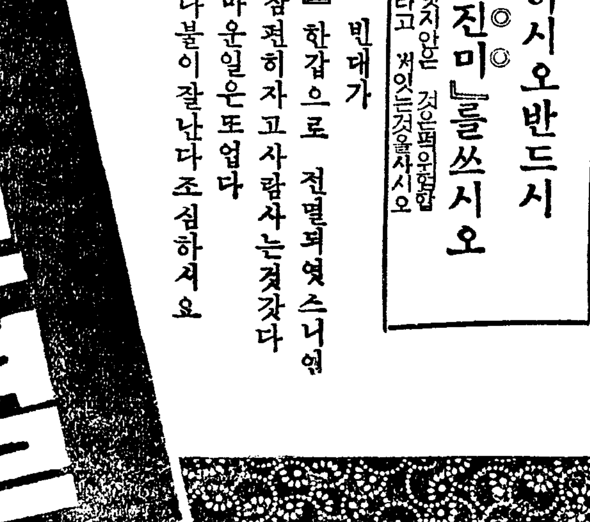
전멸되는리유(理由)

◉빈대가조와하는 냄새를 맛고나와서 가루를먹고 당장에 즉사하고 또 곳안 죽은빈대가 가루를뭇처 드러가면 빈대 집에잇는 빈대색기 빈대알까지아조써 도업시멸종하는 신기하고 이상한 세계 적 신발명 리상적전멸(理想的)에 대성 공하얏습니다 쓰는법도 간단합니다방 가에가루를 뿌려두기만하면됩니다

파리약가지고 빈대약이라고 하는대가만타 갑싼것은열른 보기에죽은듯 하다가도곳다 시살어나며원 집안빈대가다 몰사하여야지 한방안빈대가 조곰약하여지 는정도의약은 아무소용업다 결국갑싼것은 갑싼갈치자반 이되고마니 갑빗싼것이도 리혀쌈니다좀 잘생각하여주 시요

發明界의驚異 (놀나운신발명)

지금까지 독한냄새에 빈대는 살수업슬해야 이처럼기다한 ...



(人畜無害라는글자가업스면 위험합니다모르는약에주의)

類似品에주의하시오반드시 『빈대전멸분팔진미』를쓰시오

(人畜無害이 주무해라고써잇지안은 것은모두위험함니다사실때반드시인축무해라고 써잇는것을사시오)

웬수의 빈대가 「팔진미」한갑으로 전멸되엿스니엇 제는밤잠편히자고사람사는것갓다 어련고마운일은또업다 빈대잡다불이잘난다조심하시오

빈대를사전멸

빈대 영영 전멸

南京虫永久絶滅!!

빈대전멸분팔진미 (갑싼것은질이안조코또나옵니다)

방이여럿이면……오원

두 간 방 엔……삼원

한 간 방 엔……이원

시 험 용……일원

송 료 대금인환……삼십오전 선금……십오전

경성서대문리전기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京城西大門入口 조선제일큰약업회사

代理店募集

規定郵送함

資本金百萬圓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 (三二四番)(三一九九番)(一〇七七番) 振替口座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 西大門 光化門 四五一號

中部版

水原農村婦人會長 숫가락모아서獻納

【水原】 지난일 수원군오정면 조원리(水原郡梧亭面棗園里)농촌 부인회장 이화영(李和榮)여사는 일반회원을 가가호호로 방문하야 고비상시국에 처재가 보국되여 매우 곤난하니 각가정에서 사용하던 청기가잇스면 국방용으로 헌납하자고발기하야 수까락등을 약사만가량 모아가지고 조원주재소를방문하고 이것이 비록미미한것이나 아동여자가 헌납한열성이니 수납하야 헌납하여달라고하엿다 주재소원들은 감격하야 곳 헌납수속을하엿다 이여사의 활동을 칭찬하기마지안는다

開豊郡內各部落에 托兒所百個를新設

農村幼兒三千名을收容할計畫

野外勞働하는婦女爲해

【開城】 개풍군내의 농촌부녀들은 농번기이되면 논밧헤나가서 일하기로 평판이 자못 놉다 그래서 요지음가튼농번기에는 그들은 대부분이 야외로동(野外勞働)에진출하고잇는데 그 반면에그들은 자녀를 양육할시간이 자연업게되므로 일즉이각처진흥회에서는 탁아소(托兒所) 설치문제를 의논하여오든바 금년에는 기어히 그실현을보기로 되엿다 내용을듯건대 우선금년에 군내각처중요부락에 백개소가량의 탁아소를 신설하고 유아 삼천명을 수용하기로작정되엿다 간호할책임은 우선임시로 그곳학교졸업생 면직원부인들이 희생적으로 중임을 맛기로되엿스며 박앗일을 못하는 늙은할머니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돌보아주기로 되엿다한다

夜警中青年團長 竊盜前科者逮捕

【仁川】 인천부도산정(桃山町)은 작년칠월사번지래 청년단(靑年團)이 결성된이후에는 단원의 활동으로 종래의악평이 사러지게되엿고 정자치(町自治)에 다대한공헌이잇섯는데 최근에는 일반가가꼬들어감을따라 부내전체로 절도사건이빈번하야 요사이는 단장김명균(金明均)씨가 솔선하야 야경을시행하야 도라다니고잇든중 지난구일오후 열한시에 부내도산정삼십칠번지 부근을 배회하는 행동수상한자를체포하려할때에 반항함으로격투끄테 체포하야 인천경찰서(仁川署)에데려다가 취조한결과 도산정이십팔번지 정유덕(鄭有德)의집에침입하야 금시게양복기타 시가팔십여원어치를 절취한것을 자백하엿다 이자는 절도전과일범의 김재만(金在萬)(二六)으로서 여죄가만흔모양이므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광나루江邊沙場 洞民共用에歸結

個人에게貸付햇든것은取消

委員들의活動奏効

【纛島】 기보=뚝도면 광장리(纛島面廣壯里)강변국유지 일천여평을 뚝도면당국에서 대부를 마터가지고동리제일구 구장이한수(李翰秀)씨에게 대부하야 당지의주민과 목재상을 경영하면서 그지대와 직접으로 이해관계를가진 당업자간에 말성이 생겻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그후로 유지들은면당국과 이한수씨와 누누절충한결과 이씨는전연관계를끈코 사용권을 그동리에서 가지게 하는동시에 면에 납입하는대부료 년액 평당오전씩과 당지소방조에 연액칠십원을 마러가지고 동리에서 부담지불하고 종전과가티 무료로사용하기로 되엿스므로 십일오후일곱시부터 당지구장 박유영(朴有榮)씨방에서 동민회를열고 압서 괴선되엿든 위원들의 전말보고를하야 이의업시 가결하고 열시반에 산회하엿다 문제는이로써 원만해결되엿다고한다

番大方町後麓에서 青年縊死屍體發見

【永登浦】 십일오전열시쯤에 부내번대방정(番大方町)구십번지뒷산에 년령이삼십팔세가량 되여 보이는 내지인상점의 점원인듯한 조선인남자가 목을매고죽은것을 동리인이발견하고 곳소관 영등포경찰서에 보고하엿스므로 현장에나가 보앗스나 아무것도 유류품(遺留品)이업서서 방금신원을조사중이라한다

(?)으로 판명되엿슴으로 지난십일 친부에게 시체를인도하엿다 한다

金浦가마니販賣額 十八萬圓에到達

一月부터五月까지

【金浦】 김포군에서는 농가부업의 대종인 가마니장려에 적극적으로 지도하여온결과 생산고가 매년증가하여가는중이다 금년일월부터 오월말까지의 통계를보면 오개월동안에 가마니생산매수가 일백사십사만삼천오십매인데 그중에 곡용(穀用)가마니가 육십구만사천이백팔십오매 염용(鹽用)이 육십만육천사십팔매 토용(土用)이 일만이천칠백사십삼매 거처자리소용이 십이만구천구백칠십이매이고 이에대한 가격이 약십팔만원에 달하므로 어른이하야 농가경제상 막대한유익을주고잇는 형편이다 김포군당국에서는 금후도 연산이백만매를 목표로 가마니장려에 일층더주력하고잇다한다

富平移秧은四割

【富平】 부천군부내면(富川郡富內面)에금년도모나간것을지난십일현재로조사한것을보면 사할밧게안되며 전년동기에 비교하야 이할가량이나적다 기절관계로과히불량한편은아니고 사오일후면 륙할가량은 나갈것이라는데 남아지 삼사할은 금후우량여하로 이양에 늣지나안홀가 염려중에 잇다

豆賊逮捕

십일일새벽 네시쯤되여 부내수은정(授恩町)백칠십번지최윤교(崔允敎)집에잇는 이봉황(李鳳凰)(三)은 주인집 공한가마니를 제것처럼 저내여 팔랴다가 종로서에잡혓다

箭串橋上첫事故

村婦汽動車에觸傷

【纛島】 십일 오전아홉시오분쯤 에이번에 새로가설된 살곶이다리 우에서 그곳을통행하든 경기도광주군 동부면미사리(廣州郡東部面渼沙里)사는 최씨(崔氏)(五七)라는여자는 그때마츰김세원(金世元)(三一)이운전하야 동대문으로가든 제십사호기동차에 바치여서 중상을입엇다 왕십리 삼포(三浦)의원으로 데려가 치료중이다 최씨는오리를 망주리에이고 서울로 팔러가든길에경적소리를 듯고자동차가 오는것인줄로알고 외편으로 피하다가 뺑리운전하여가든 기동차에부듸치게된것이라한다

高陽郡春蠶繭 共販期日決定

【高陽】 고양군(高陽郡)에서는금년도 춘잠견(春蠶繭)을 다음과 가튼 일정으로 공동판매 하기로되엿다한다

▲碧蹄面高陽里 自六月十三日至六月二十一日

▲中面一山里 自六月十三日至六月二十三日

▲高陽郡廳 自六月八日至七月十日

仁川府內各小學校 夏休宿題減少決議

外出을만히시키고體育을奬勵

【仁川】 인천부내에잇는 각소학교에서는 오는하기휴가에 아동에게대한 준비를개획중이다 작년까지는 아동이 외출하는것을 겁하기위하야 숙제(宿題)를만히 내여주엇스나 금년은 그방침을 변경시켜서 아동보건에 주력하기로 각학교가 결의하고 숙제를 감소시키고 운동에 대한것을 보급시켜서 체위향상에 주력하기로되엿다

失足少年屍體 永宗島에漂着

【仁川】 지난팔일저녁에 부천군 영종도(富川郡永宗島)해에 어린애시체하나가 표착한것을 지나는사람이 발견하고 영종주재소(永宗駐在所)에 신고하엿는데 소원이 급행하여검시한결과 기보한 인천부화수정(花水町) 민기여(閔起呂)의장남 경상(慶祥)

仁川大和小學校 落成式盛況

【仁川】 기보=조선인교육확충을 목표로 금년사월에 개교한인천 대화공립심상소학교(仁川大和公立尋常小學校)의 교사신축락성식은 지난십일오전 십시부터동교강당에서 래빈백여명의 참석으로 성대히 거행하엿다

推薦狀에添書도 選擧違反行爲

조선지방선거취체규측에잇는추천장(推薦狀)의 의의(意義)에관한 고등법원의 신판례—구일 고등법원에서 황해도 신천군신천읍교탑리(信川邑校塔里)일백사십번지 공의(公醫) 유창만(柳昌萬)(四七)외 삼명에관한 조선지방선거취체규측위반피고사건의 언도공판이 삼전(森田)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관여하에열려 재판장은부터 『원판결을 파훼하고사건을 복심으로차려한다』는 판결을나리는동시에 추천장의 의의에관하야 다음과가튼신판례를지엇다

조선지방선거취체규측제사조의 사(四의四)에 소위 추천장이라고잇는것은 특정인(特定人)을 의원후보자(議員候補者)로 추천한다는 뜻을기재한문서로 선거인에게 도달시킴것을말한다 따라서 이이외의사항을 기입하는것은 위법이라는것인데 사건내용은 전기유창만이가 소화십이년오월 황해도도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엿슬때 가튼동리에거주하는 피고 강창호(姜昌鎬)(?)정공원(鄭蓀煥)(?)등에게 그들이게출한 선거운동자가 아님에도불구하고 유창만의명함여페다가 『伏諸惡投一票厚顏報答爲計』라는문구를기입하야 유권자들에게 게배부시킨것이라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발각되여 일심에서 유창만에게는 벌금사십원 강창호에게 삼십원 그외두명에게는 각각 이십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판결을 나렷다 이유고피고등의 공소로평양 복심에서는 정공원을 제한세명은 무죄판결을바덧다 이에검사상고로사건은 고등법원까지 왓섯는데 동법원에서는 복심판결이유『명함여페쓰인글은 자기추천적(自己推薦的)문자를 기재한 것이란』인정한데대하야 『원심판결은사실의 확정에영향을 미치게하는 법령위반으로 인정한다』나리고 이것을시판례로 재판하기로하엿다

纛島水防團 來卄三日에演習

遊園地압江邊에서

【纛島】 시외뚝도수방단(纛島水防團)에서는 방금공사중의 뚝도제방공사(堤防工事)가 금년부터는 친수되지아늘 정도까지완성되여잇스나 만의재방이 결궤(決潰)될 경우에 만전을 기하고저 예에의한 제삼회련습(第三回練習)을 오는이십삼일오전열한시부터 뚝도유원지(遊園地)압강변에서 동대문경찰서(東大門署)의보안계주임(保安係主任)통솔하에 실시하기로되엿다 이날은왕십리(往十里)와경릉리 각수방단관계자들도 참석하리라고한다

北支로건너간者 一百五十三名

龍山警察署管內五個月間總計

정든 고향을지고 살곳을차저 여명의부지로 남부여대하고 떠나는동포들은 나날이 늘어감에 기러기진파가리 뒤를이어 떠나는이때에 용산경찰서 외사게에 나타난 금년일월부터 이달십일까지 드러온북지이주자도항허가원(北支移住渡航許可願)을 보건대합계 이백오십삼명으로 그중 내지인(內地人)이 칠십칠명이고조선인이 칠십륙명이다 이를도한월별(月別)로보면

일월에 삼십사명

이월에 삼십명

삼월에 육십삼명

사월에 칠십팔명

오월에 사십팔명

이다 그들이 각각 하여엽는문물을 뿌리며 무거운다리를 잇끌고 간곳은

천진에 일백십구명

석가장에 삼십오명

상해에 이십삼명

장가구에 일곱명

제남에 네명

등이라한다

龍山鐵道醫院改名

용산철도의원(鐵道醫院)은 십일일부터『경성철도병원』이라고 명칭을 고첫다 대정십오년삼월까지는 용산철도병원이라고 하엿든데 그해사월에 철도국에서 직영하게되는동시에 용산철도의원이라고 다시고처서 오늘까지 나려온것이엿스나 경성이라도 일홈을 부치는것이 적당하리라하야 어번에 고치게된것이라한다

黑沼署長熱辯感動 國防獻金遝至

【水原】 흑소(黑沼)수원경찰서장은 이비상시국의인식을 일반민중에게 철저히주입하고자 매일처처로 출장하야 일반민중을모아 좌담회를개최하고 총후보국에대한 사상을주입하야오든중 지난구일은 수원군 삼괴시장(三槐市場)에나가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어떠케나 민중을감동식키엿든지 좌담회에열석하엿든 민중은 각각주머니를기우려 흥은국방헌금、흥은휼병의위문금을 헌납하므로 방금조암주재소에서는 헌납수속을 수원경찰서에 의뢰하야왓스므로 경찰서에서는 개인별로 헌납수속을하는중이라한다

仁川沿海島嶼巡遊 貸船營業을出願

【仁川】 인천부만석정(萬石町)구십팔번지사는 유송리팔(有松利八郞)은 지난오일에 인천경찰서(仁川署)에 출원하야 인천연해에 연평도(延平島)무의도(舞衣島)령흥도(靈興島) 영종도(永宗島)팔미도(八尾島)장봉도(長峰島)소무의도(小舞衣島)이아도(二兒島)등 일대에 대선(貸船)영업을 계출하엿다 이것이 허가되면 인천으로서 일반유람객에게 한 편의가만으리라하며 압으로 인천근해의 각섬의풍경을 마음대로 구경할수잇스리라 한다

新設町土幕問題 府會에서도論難

부내신설정(新設町)『모래말』의 토막(土幕)문제에대하야는 보한바이어니와 십일 오후두시부터 경성부청에서 소집된 경성부회에잇서서 그의제이경성부회상정의원장보고와 메도부지무상양여에대한 심의가끗난다음 유승복(劉承復)의원이신설//모래말//토막문제에관하야 질문하고 그진상을부당국자로부터 캐답하야 달라고하야 부회의공기가 잡자기 긴장되엿스나이문제는이날부회의의사일정에들어잇지안홈으로비밀회의에서 심의하기로하고 이날부회는 그대로끗을마치엇는바 이신설정토막문제가 드디여 부회에까지 오르게되여 금후이문제의 진전이 자못흥미를끄게되엿다

開豊郡의移秧順調

【開城】 개풍군(開豐郡)일대는금년도우순풍조하야 벌서부터 풍년을점치고잇다한다 그래서 논이라는논은 모다물이풍족하야모내는 농부들의 격양가가 인에서 절로흘너나오는때이다 개풍군농회에서는 오는십오일까지군내일대는 전부 모를내도록 예사하리라한다

京畿道商工相談所 七月初開所豫定

中小商工과軍需工業振興圖謀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상공업의진흥을 도모하기위하야 금년도에 새로히 상공지도상담소(商工指導相談所)를 설치하기로되여금년도 예산에 이에소요할경비사만원을 계상하고 개소준비를하고잇든중 오는칠월초에는 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일정목에 서개소하기로 되엿다한다 동소의사업은

一、海外市況의調査

二、商取引의 紹介斡旋

三、輸出好望品의海外宣傳

四、職工募集斡旋

五、工業資源에關한調査

六、新工場設置計畫의 實施指導

七、新規工業開拓 軍需工에對한調査와誘致指導

八、農村에서의商工業의助長改善

이며 기타중소상공업에대한 제반의지도상의에 응할터이다 소장은 산업부장(産業部長)이겸무하고 그외에 주사(主事)기수(技手) 촉탁(囑託)이명 서기(書記) 칠명을 두기로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吉井勳男氏(金浦警察署長)十日午前十一時五十分官民多數出迎裡에着任

金浦郡에서도 千五百頭增殖計畫

二十個年間畜牛奬勵方針樹立

【金浦】 김포군에서는 일반농가에 대하야 축우장려(畜牛奬勵)를 적극지도하여온결과 현재농가에서 가지고잇는 축우수가 사천칠백사십칠두에 달하고잇스나 이를 군내농가호수 팔천팔백사십칠호에 비하면 아직도 증식시킬여유가 충분하므로 금년부터 이십개년계획으로 제오차축우증식계획(畜牛增殖計畫)을 세워서 이십년후에는 농우 일천오백사십팔두를 증식케할 목적으로 적극지도할 방침이라한다

永登浦 第五回 纖湖蹴球大會

▲時日 六月卄五、六、七、三日間

▲參加金 參圓

▲場所 放鶴亭住宅地運動場

◇申請期日 六月卄一日午後七時까지

◇主催 永登浦體育會

◇後援 朝鮮日報永登浦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梁山支局 位置 慶南梁山邑內 變更 昭和十三年六月一日

支局長 金達柱 右新任

支局長 李在根 右解任

朝鮮日報社 白

康津支局 位置 全南康津邑 變更 昭和十三年六月一日

支局長 金敞植 右新任

支局長 朴順淳 右解任

謹告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松川分局 位置 黃海道長淵郡大救面松川里 設置 昭和十三年六月六日

分局長 呂鳳順 右新任

朝鮮日報社長淵支局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如左變更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龍宮分局 位置 醴泉郡龍宮面邑部里 變更 昭和十三年六月一日

分局長 金燦宇 右新任

分局長 權五德 右解任

朝鮮日報社醴泉支局 白

馬山支局 總務 金龍浩 記者 金善圃 集金員 崔東洛 右新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昌寧支局 總務兼記者 具飾書 右新任 同 金琮墳 右解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金泉支局 記者 鄭頭基 開寧駐在記者 李永雨 右新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安岳支局 溫泉分局記者 朴鑾圭 右新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造岳支局 記者 金承俉 右新任 同 金石盛 右解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龍城分局 顧問 許文都 同 李奭殷 同 金璽龍 右新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洪君分局 記者 趙來寶 右解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奉天支局 集金員 趙松一 錦州分局長 朴鳳燮 齊齊哈爾分局長 元東明 十里河分局長 金興道 右解任 昭和十三年六月十一日附

잘문질이발너두면 저절노낫게하여짐

음부 습진수종

세一킨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円

大阪市東區久太郞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番

各藥店에잇슴

登錄商標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에 全)早漏에百發百中！

早漏防止

(無効返金)

興益公司

鑛山機械 農具 工具

平壤南門通 五六商会本店 電話代表56

カタログ進呈

全北支社私書函 全州郵便局私書函第五一號

補精腎氣强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眞品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

朝鮮金山府草梁町 大洋貿易社

紙齡六千號 革新五周年 朝鮮特産品展覽會記念

朝鮮銀行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水原金融組合 組合長 車濬潭

永同

黃澗面協議會員 南城里 李源敎 院村里 孫敬模 關岩里 宋秉哲 新興里 曺敬敏 友梅里 金奭泰 蘭谷里 金判述

京釜線黃澗驛前 永昌醫院 醫師 曺永鎬

永同酒造株式會社

永同邑內 忠北道會議員 孫在夏

永同邑內 三宅勝三郞

永同郡鶴山 酒造株式會社

東洋金山株式會社

永同郡上村面林山里 公醫 洪日福

黃澗面南城里 綿布織物雜貨 開明商會 主 洪?植

上村公立小學校 職員一同

永同公立尋常第二高等小學校

黃澗面西松院里 文廟直員 鄭鎣澤

黃澗面友梅里 徐相富

黃澗面南城里 安聖壹

黃澗面金溪里 李用雨

黃澗面栢子田里 金東勳

黃澗面蘭谷里 金圭英

永同面美?里 孫文述

黃澗面牛川里 金盛猷

黃澗面老斤里 沈在德

黃澗面蘭谷里 大寺 吳鄭松

黃澗面蘭谷里 金海成

黃澗面新興里 方在玉

黃澗面松院里 鄭雲宗

黃澗面牛川里 盧炳鼎

黃澗面南城里 金圭琬

黃澗面友梅里 李錫龍

黃澗面小?里 曺重君

黃澗面南城里 理髮業 崔者洙

黃澗面院村里 李敬俊

黃澗面南城里五七一番地 高崎合名會社黃澗出張所 金泰年

永同郡上村面林山里 南基用

黃金面秋風嶺里 鄭泰植

漢川

漢川市 崔德洙

漢川金融組合長 崔贊洙

榮州

榮州産業組合理事 金泰斗

慶北榮州邑內 榮和醫院 院長 黃由燮 電三九番

榮州邑 支榮堂本店 電一四番

慶北榮州邑 木材 鹽穀 貿易 三益商店 電九番

慶北榮州邑內 順昌醫院 院長 金昌湜 電一五番

慶北榮州邑內 姜錫祚

榮州郡豐基面城內洞 嚴昌燮

榮州郡平恩面 面長 張師麟

榮州郡廳 榮州郡農會 電五番

榮州郡浮石面龍川市 絹緞布木雜貨 金思鴻商店

慶北榮州邑內 金商 向英堂 金命壽

慶北榮州邑 料理朝鮮 元祖 海東館 金華洙

慶北榮州邑 朴勝佑 電三五番

宋?祥

榮州郡豐基面邑內里 車丙燮

慶北榮州郡豐基 豐基蔘業組合

慶北榮州邑內 順天堂藥房 姜?求 電三三番

各國時計 眼鏡 年額萬年筆 金銀寶石 附屬品一切 慶北榮州普校前 榮工舍時計店

慶北榮州邑 綿緞布木 洪成商店 主 洪思國

榮州邑內富の鶴特約店 和洋酒 食料品 洋菓子 榮州商店 電一八番

榮州邑內 安東屋 鄭性喜

榮州邑 濟世堂乾材藥房 申太湜

榮州邑 榮州釀造株式會社 電五一番

慶北榮州邑 普信堂時計店 主 朴炳湜

榮州邑內 崇文社 電二五番

榮州郡豐基 韓德履

慶北榮州郡豐基 種苗藥 衛生材料 天命堂藥房 洋藥種商 禹斗命

榮州郡豐基 豐基酒造組合

榮州郡順興市 網緞布木 食料 宣鎬福商店

榮州郡順興邑內 金昌祿

榮州郡醴川市 三共商會 朴泓九

榮州郡醴川市 崔雲燮

榮州郡順興邑內 順興釀造場 安承元

榮州郡醴川市 張師植

榮州邑內 金物商 德興社

榮州郡浮石面長 朴夏翼

榮州郡丹山面坪山里 黃潤德

榮州郡平恩面金光 平恩釀造場 姜大洽

榮 野

榮州郡長山面 井一金鑛事務所

長篇小說

薄命 (22)

韓龍雲 作
鄭玄雄 畵

誘惑【二二】

해는 서양이되엿다 모래강변에 널어노흔 빨래는 깨끗하게 마전되엿다 거더가지고 오라고 할때에 눈을 들어서 산천을 둘러보앗다 한가지의 나무와 한명이의 풀 까지라도 모두가 낫익은것이엇다 해마다 해마다 자기손으로 매가꾸던 밧 어제까지도 자기손으로 매든 밧은 고요히 누어서 자는것 가탓다 그러나 자기를 기다리는것 가텃다 한번가서 다시 돌러보고 훔이라도 만저보고 시펏다 매다가 남은것은 누구가 맬것인가 가꾸어노흔 감자는 누구가 캘것인가 도라오다가 바늘 세번이나 도라보앗다 자기 동리에서는 저녁 연기가 드문드문난다 또는 보리박아 찟는소리도 난다 동무아이들은 물을 짓너라고 무슨 이야기들을 속사이면서 오락가락한다.

『빨래 해가지고오니?』

『빨래두 만히두 해가지고온다』

『지금가서 저녁할려면 늣것구나』

『날마다 밧매구 빨래하구 어렵겟구나』

동무아이들은 다투어서 순영이에게 인사를한다 순영이는 빙긋 우스면서 대답을 하얏다 순영이는 그아이들이 불상하게 뵈엿다 자기가 나종에 잘된다면 그아이들을 도아라도 주고 시펏다.

『순영이는 불상한 아이다 날마다 밧매고 빨래하고 바누질하고 밥해먹고 잠시도 놀새이가업다 그래도 저의 어머니한테 핀잔만 듯고 매만맛는다 그래도 원체 양전하니까 그 구둠을 다치는지』 동무아이들끼리 이러케 말하는 소리가 순영이귀에 들린다 순영이는 그아이들이 고마웟다 그러나 마음이 선뜻하면서 자기집 사립문을 바라보앗다 자기가 장근것이 그대로 잇는것을 보고서야 마음을노앗다 그것은 서울갈생각이외에 아무다른생각이업시 도타오든 순영이가 동무아이들말을 듯고서 홀연히 계모에게 대한생각이 낫다 그리하야 계모가 내일저녁때에 온다고는 하얏스나 혹은 그새이에 오지나 아니하얏나하고 사립문의 열리고 열리지아니한것을 바라본것이엇다.

순영이가 문을열고 드러서자 텅 비인집이 우둑선것이 마음에 희회하얏다 그리하야 집안의 구석구석을 둘러보앗다 그러나 아모리 사나운 계모라도 집안에 잇다자 자기의 오는것을 아른체 하는것이 조핫다는 생각은 나지 아니하얏다 순영이는 보리밥을 다겨서 방울지 올까 하다가 자기혼자 먹자고 새로 지을것이업서서 아침에 먹다남은 찬밥 한덩이를 찬물에 노아 뚝뚝꺼서 남편장하고 달게 먹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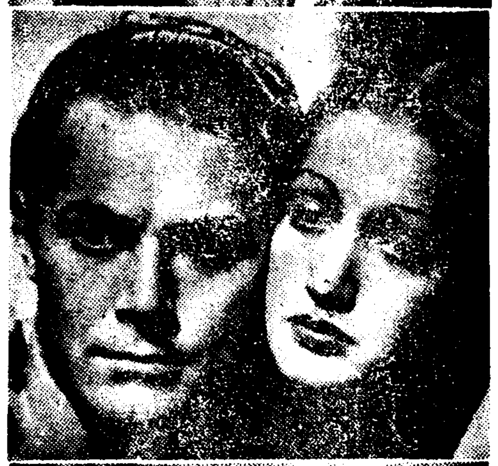
순영이는 모든것을 챙기기 시작하얏다 집안 쓰서리도 새로하고 부엌도 깨끗이 정돈하고 자기방안도 정리하얏다. 다만 자기의 친어머니가 시집올때에 가지고 온것이라고 아끼다가 자기에게 물려준 비단저고리 하나 명주치마 한채 새버선한켜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한장 그것만은 기렴으로 가지고가기로 하얏다 그러고 자기의것이라고는 빨갯 한벌을 가랑잎은 이외에 자기손으로 만드러 두엇든 꼬부 몃개 바눌저리 몃개 쪼각보 하나 그런것들 몃가지 뿐이엇다 순영의 보찜은 간단하고 조그마하얏다.

등잔불은 히미하얏지만 순영의 정신은 깨끗하얏다 밤은 듯요하얏지만 순영의 마음은 설네엇다 미래를 생각할때에는 우슴이 낫지마는 과거를 생각할때에는 눈물이 흘럿다 기뻘이 설음을 이기는가하면 눈물의흔적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슴의자최가 거치지 아니한다 기뻘과 설음이 마조칠때에는 순영의어린가슴은 폭란이업시도 폭발될듯 하얏다 순영이는 정신을차리라면 조름이오는듯 하더니 잠을좀 자보랴면 눈이반반하얏다.

순영이는 무슨 생각을 하얏는지 윗방구석에 쥐구녕을 막어노흔 부러진 벼루도막을 끄내다가 몬지를 불고 자리끼로 떠다노흔 물을부엇다 그리하고 석유궤짝으로 만든 자기의 손궤에서 비뚜러지게 다튼 먹과 각과 대는 깨어지고 촉만남은 붓을 차저냇다 그러나 조희는 아모리 차저도 업서서 자거아버지가 사초(私草)를 베끼다가 남은 책장 한장을 뜨덧다.

輸入解禁에따라待望되는 米國의名畵 注目의焦點은歐洲映畵

양화수입금지로 말미암아 여러달채 불안의공기에 싸혀서 지내든 영화팬에게 어번 칠월부터 새로히 해금된다는 이야기가 전하여진지도 여러날이되엿다 그러다가 다시 며칠전에 미국영화협회일본지부(米國映畵協會日本支部)의 구체적 타협안으로말미아마 대장성당국에서도 일체외국영화수입금지방침에대한 철저한토의를행한결과 미국의사대산업정책중의하나인 영화에대하야 가혹한장벽을 쌋는것은 일미양국간의감정을 악화할염려가잇다고하야 국책상용허할수잇는작품만 년이백본 위한하고 수입허가할방침이다 이러케 여러가지 난관을거처 문제가 해결되여 가라는중이며 각영화배급소는 재래의무제한한수입에서한거롬 나가 질적으로 조흔작품의선택하게되엿다 그러나 문제는 구주영화(歐洲映畵)에 잇스니 과연 구주영화의수입문제는 어쩌나될른지 아직도 영화수입의 난관하나가 남어잇는셈이다



○……○

어쨋든 양화가 수입되게될것만은 사실이요 인제 다틀렷다고 낙심해버렷든 영화가 다시 가을부터 보게될모양이다 그리고 현재남어잇는 재고품은 육십여본밧게안되나 이중에서 기대될것은 이십본에 지내지못하는 형편이다 이제 해금과 동시에 곳수입될수잇는 조흔 작품이십본만 초록하기로하자

▲"마르코폴로의冒險"—"아—취 메이요"監督 "게리·쿠—퍼"主演 ▲『막다른골목』윌리암와이러監督 『조엘·마크리、』『실비아·시드니』主演 ▲『颱風』—『존·포—드』監督『쫀·호올』『도로시·라무어』主演 ▲『스텔라·다라쓰』—『킹·비—다』監督『바—바라·스탬위크』主演 ▲"톰·소—야의冒險"—"노—만·타우로—그"監督"톰·케리—"主演 ▲"젠다城의捕虜"—"존、크롬웰"監督 "로날드·코르만"主演 ▲"天使"—"에른스트·르빗취"監督"띄—트리히·하—버—트、마—살"主演 ▲"靑髮의第八夫人"—"르빗취"監督"게리—쿠—퍼"、"크롤데트·콜베—르"主演 ▲"一九三八年의 大放送"—"미첼·라이젠"監督 (파라마운트) ▲"海賊"—"데밀"監督"프레드릭·마취"『프란씨스카·칼』主演 ▲『征服』—『클나렌스·브라운』監督『솨—르·보아예』『그레타·가르보』主演 ▲『試驗飛行士』—『작크·콘웨—』監督『클라크·게—블』主演 ▲『皇帝의獨臺』—『윌리암·포—엘』、『루이스·레이너』主演 ▲『마리·안토아네트』—『노—마쉐레—』『타이론·파워』主演 ▲『巴里의批判女』—『헨리·코스터—』監督『다니엘·다류—』主演 ▲『아베·마리아』—『노—만·타우로—그』監督『디아나·다빈』主演 ▲『트바리쉬』—『아나톨·리트바—크』監督『클로데트·콜베—르』『샤알·보아예』主演 ▲『제제벨』—『윌리암·와이라—』監督『베티·데비쓰』主演 ▲『로빈훗드』—『에롤·프린』主演 ▲『白雪姬』—『월트·디스니』의 長編天然色漫畵

(사진上은『콜만主演의『젠다城의捕虜』(中)은『도로시·라무어主演의『颱風』(下)는『띄트리히』의『天使』의場面)

저녁날의名女優 나지모바再現
그러나이번은女監督으로

영화팬으로 십년이상의역사를 가진이면 세계적명여우''아라·나지모바''의일홈을조고감게무랑하지안는이가업스리라 그런데이''나지모바''가 다시''헐리우드''로왓다고전하여진다 이번다시이영화도시로 나타나게된이유는 그전과가티『스크린』에나타날작정이아니고 영화감독으로 나오리라는것이다 넷날『살로메』『춘희』(椿姬)등에서보여주든그녀자가인제 오래동안서허운 경험을토대로한다면 넉넉히 이길에나설수도잇슬법하다 여자영화감독으로는『도로시아—즈너』가잇슬뿐 인제이두여감독이 쌍벽과가티 나타날모양이다 그리고제일회작품으로『입센』의『유령』(幽靈)을감독하리라고한다

"다롱"、"아나벨라"、"씨몽"이 "루비취"수훈식을축복

''파라마운트''전속인 명감독 ''에른스트·루비취''가 영화공로자라는이유로 불란서정부(佛蘭西政府)에서 ''레종·도너—르''라는 훈장을하사하엿다 정부에서 이명광을바든 불란서령사(領事) ''제·제·비라''씨는 어훈장을가지고 즉시''루비치''씨를 차저가기로되엿다 그런데 그날령사는 헐리우드에 배우로와잇는 불란서인 ''로베—르·플로레''씨에게 어뜻을 전햇다 그랫더니''로베—르''는 지금 ''헐리우드''에서 굉장한인기를 가지고잇는 ''다니엘·다류—'' ''아나벨라'' ''시모—느·시몽''의 세아가씨를 함께다리고갓다. 가튼 헐리우드에와잇스면서 어세아가씨가 한곳에모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운광경인가? (사진(左)로부터 ''시몽'' ''아나벨라'' ''로베르·플로레'' ''루비취'' 감독 ''비라''영사 그리고 눈을내리감은아씨자 ''다니엘·다류'')

오디라 JODK

어린이科學 (十二日午後六、三〇分) 반듸(螢)

城大豫科助手 趙福成

여름밤 들에 또는냇가에 반짝반짝고흔파란불을빗치며 날느는어엽븐벌레 아마여름밤에서벌레가업서진다며는 얼마나 쓸쓸하겟읍니까 그벌레가무엇이지요 반듸라는벌레입니다 그파란불을 반듸불이라고하지요 오늘은 그반듸이야기를해보겟읍니다 어떠케해서 그러케고흔불을 반작어리는가? 반듸는어듸서자고 겨울동안에는 무엇을 하고잇다가 여름에만나오나 옛날어떤어른은 밤에공부를할라도 불을 켤기름이업서서 반듸를잡어서 주머니에느어가지고 그불빗에책을 볏최며공부를하얏다는이야기도잇읍니다 이러한이야기도하랴고합니다

=名曲鑑賞= (十二日午後一時)

解說 任東爀

현대음악의 양거장(兩巨匠)으로서아의『스트라빈스키—』와 불란서의『라벨』두분의 대표적명곡들을『레코—드』로 해설하야 드리고자합니다

(一) 西班牙狂詩曲

이곡은『라벨』의작곡으로『라벨』은 근대불란서가 나흔 현대음악의명인『드뷧시—』와아울너일커르는분입니다 그는 一八七五년서반아(西班牙)와 국경『피레네—』산맥부근에잇는『시부—른』라는곳에서 출생하야수년전에별세하엿읍니다 그의특징은 인상파적(印象派的)이며 소형식(小形式)의 미려한곡은그가장 장기로하던바입니다。오늘들리어드릴이곡은 가장그의특색을잘발휘하는것입니다

(二)火鳥

이것은 로서아의『스트라빈스키—』의명곡(名曲)중한아입니다 그는 一八八二년『레닌그라—드』에갓가운『오라니엔바움』에서출생하야 지금도생존하신분입니다 그는어려서부터 음악에대한천재를보엿지마는 그부친은 음악전공을식히지안허 법률(法律)을전공하게하야 한때음악공부를 중지하얏다가 一九○二년『림스키—콜사고푸』와만나 그의지우(知遇)를어더다시 음악연구를계속하야 一九○八年로서아 무용단장(舞踊團長)『셀게이·데아기레푸』의청으로 그무용단을위하야 창작한무용음악이바로 이곡입니다 이곡은 어느나라왕자가 불빗새(火鳥)의날개를어더가지고 마술왕(魔術王)에게 잡혀간왕녀를구하야오다는동화(童話)에서 취재한것으로 그의무용악『페트로슈—가』춘제(春祭)등과아울러유명한곡입니다

歌詞(十三日後八、三〇)

盧錦桃
徐山玉

春眠曲

춘면(春眠)을 느즛깨여 죽창을반개하니 정화(庭花)는작작(灼灼)한데 가는나비를 머무는듯 안류(岸柳)는 의의하야 성긴내(疏煙)를 띄웟세라 창전에 덜괸술을 二、三배먹은후에 호탕하야 밋친흥을 부절업시 자아내여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야류원을 차저가니 화향은 습의(襲衣)하고 월색은 만정한데 광객인듯 취객인듯 흥을겨워 머무는듯 배회(徘徊)이 고면(顧眄)하야 유정이잇서노라니 취와주란(翠瓦朱欄)노픈집에 녹의홍상 일미인이 사창(紗窓)을반개하고 옥안을잠간들어 웃는듯반기는듯

放送 JODK 프로그람

十二日(日曜)

◇午前九時三○分 (平壤)라디오 [illegible]
朝鮮求景(金剛山中心)『[illegible]』 平壤어린이會 [illegible]
◇正午 (東)時報 音樂(京城) 一、[illegible] 二、吹打 [illegible] 李炳[illegible] 大笒 金永根 [illegible] 李[illegible]學 杖鼓 金一宇
◇午後一時名曲鑑賞(京城)(레코—드) 一、西班牙狂詩曲 라벨作曲 二、組曲『火鳥』스트라빈스키—作曲 解說 任東爀
◇同一時 蹴球試合實況(平壤) 寶林里公設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三○分 어린이科學『반듸』 趙福成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心臟의修養』 普成中學 朱[illegible]宜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 趙錦玉 歌手 韓成俊
◇同八時三○分(東)젤로獨奏 一、젤로獨奏曲 가、라르고칸타비레 나、알레그로 빠빠—체 二、콤나드리아 브롯프作曲 三、譚詩曲 池內友次郎作曲 小澤弘 피아노伴奏 黑澤愛子
◇同八時五○分 野談『銀서말』 崔汝成
◇同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平調會相 二、淸聲자진한닙 金永根
◇同一○時一○分 風習講座 西村眞太郎

第一放送
◇正午(國)[illegible]
◇午後二時(東)新進午後
◇同三時(大)童話
◇同三時一五分(東)講演
◇同六時三○分 [illegible]
◇同七時三○分 素謠 [illegible]
◇同八時(大)日曜演奏
◇同八時三○分(東)젤로
◇同八時五分(東)小說

十三日(月曜)

◇正午(東)時報 레코—드 音樂
◇午後一時一五分家庭時間『幼兒의發育과果實』城大 李炳南
◇同六時三○分 이야기(京城)『쿠오레』中에서『희롱이의병간호』 桑賢鳳
◇同六時五五分 童話(平壤) 一、이상한상자—宋昌一作 二、세발자전거—同 宋昌一
◇同七時 週間情報
◇同八時 大衆講座『電氣業務에對하야』 京電—朴承基
◇同八時三○分 歌詞 一、春眠曲 二、竹枝詞 盧錦桃 徐山玉
◇同八時五五分 歌謠曲(레코—드)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五分 라디오小說(京城) 金映玉
◇同九時三○分 (東)時報 崔明娥
◇同一○時一○分 初步國語講座 宋今璇 (一九)

第一放送
◇午前六時三○分 [illegible] (二十七)
◇正午(東)[illegible]
◇午後六時(東)物語
◇同六時一五分(城)講演
◇同七時三○分(城)라디오[illegible]
◇同七時四○分(東)講演
◇同八時(東)合唱
◇同八時三○分(大)舞臺劇

十四日(火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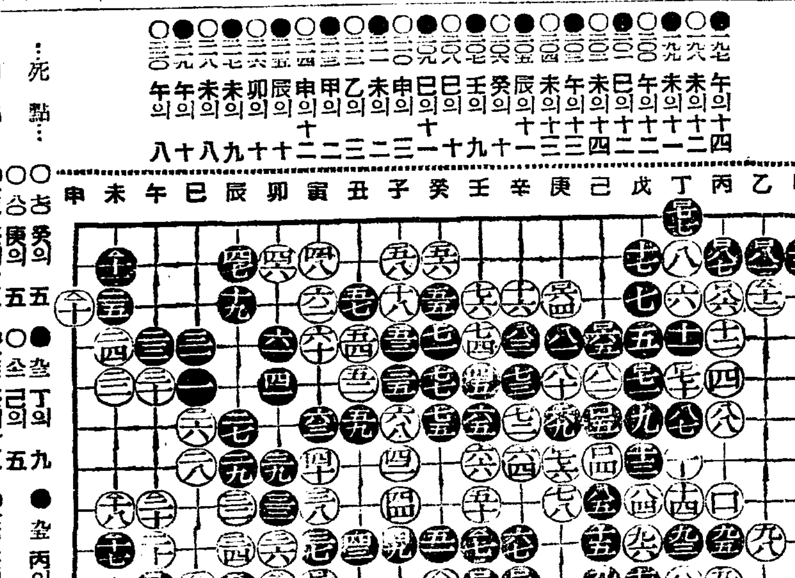
◇正午(東)時報『레코—드音樂』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名曲의由來』 洪蘭坡
◇同四時三○分 野球試合實況(國語)(決勝戰이有한時)—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京城實業野球리—그『京電—殖銀』決勝戰(雨天順延)
◇同六時三○分 童謠劇과幼年童話 一、童謠劇『술래잡기』二、幼年童話『참새깃들인머리』
◇同七時四○分 [illegible] 李[illegible]
◇同七時 講演 京城校長 野村[illegible] 沈友燮
◇同八時○分(東)피아노獨奏 一、奏鳴曲 A音調은長調 作品二六 베—토—벤作曲 二、無言歌四曲 멘델스죤作曲 가、G長調作品六二 第一番 나、A短調 作品三八第五番 다、A長調作品一○二第五番 라、봄의노래 作品六七第四番 三、다리를건너가는 젊은女子(日本小描寫曲)와인가르트너作曲
◇同八時三○分 一、農夫歌 二、城主푸리 레오니—드·크로아차— 金粲姬 成秋月 李小香
◇同九時 [illegible]부터中繼 一、五雲[illegible] 二、[illegible]之曲(大笒獨奏) 指揮雅樂部長 成和鎭 李王職雅樂部員 丁南[illegible] 朴[illegible]基 [illegible]甲[illegible]
◇同十時一○分 國語講座(六) 李完[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三○分 基礎英語講座 (二十八)
◇正午(東) 歌謠曲
◇午後六時(東) 世界偉人傳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分(城)講演
◇同七時四○分 講演(自天津)
◇同八時(東) 講演
◇同八時三○分(東) 長唄
◇同八時五三分(東) 尺八
◇同九時八分(東) 드라마

國手爭霸譜 =(11)=

本社獨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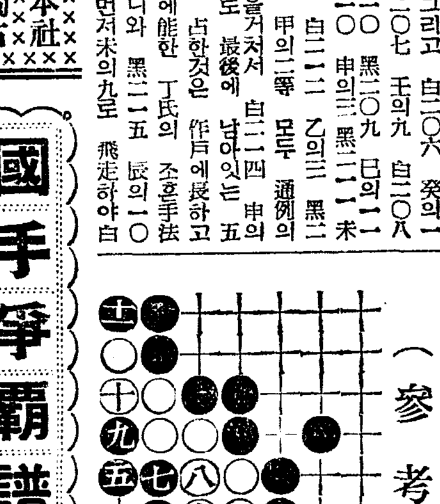
白 丁奎春
黑 權載衡
(四目半込出)



方酣한細碁戰에서 白軍의敏腕을可觀

三玄子

前回에서 말한바와가티 白一九四가 午의一三으로 侵入치안코 未의一五로 飛走한 까닭으로 이제 黑一九七은 午의一四에두어 白이 기괴侵入하믈 阻止하얏다 그러므로白一九八은 未의一三로뻗려 左邊第二線으로 박게 發展치못하고 그리하야 黑一九九 未의一一、白二○○ 午의一三、黑二○一 巳의一三、白二○二 未의一四、黑二○三 午의一三 白二○四 未의一三等의 通常酬應을 거처서 黑二○五 辰의一一로 虎口를지어 黑陣이 兩斷됨을 救함과함께 黑戶의 外線을 確定하니 이方面의黑戶는 破壞의 큰厄을 免하얏다 그리고 白二○六 癸의一○ 黑二○七 壬의九 白二○八 巳의一○ 黑二○九 巳의一一 白二一○ 申의三 黑二一一 未의二 白二一二 乙의三 黑二一三 甲의二等 모두 通例의 酬應을거처서 白二一四 申의一二로 最後에 남어잇는 五戶를 占한것은 作戶에長하고 細碁에能한 丁氏의 조흔手法이어니와 黑二一五 辰의一○은 먼저未의九로 飛走하야白의酬應을 살피는것이 올흔줄안다 그리고 그와가티두면 白은未의八 黑午의一○의 酬應을 거처서 白이 午의八로 連하면 다른問題가업스니 譜와가티 黑二一五를두고 만일 白이 巳의九로 連하면 黑은申의八의 六戶를 保障할수잇다 그러나 黑二一五가 먼저辰의一○에두어 卯의一○의 還著問題가업서지면 黑은 申의八로자처도 白이 申의一一로드러오는關係가잇서 六戶가保障되지안는다 詳細는后日說明하겟다 白二一六 卯의一○은 缺할수업는 應手이오 黑二一七 未의九、白二一八 未의八、黑二一九 午의一○은 通例의酬應이어니와 白二二○은 우에서말한바와가티 卯의九의 還著問題가업서젓스니 巳의九로 連하야도 아모일이업는것을 午의八로 連하야 先手二戶우을 損하얏다 即巳의九로 連하면 黑이 申의八로자치나 그를白이 申의七로 막아서 黑으로 하야곰 申의九로 잇게한뒤에 白이申의一一로 드러가면 黑은 未의七로 白을 끈치못하야 未의一一로 이물수밧게업다 만일 黑이 未의七로 끈흐면 別圖와가티 黑一 未의七、白二未의一○、黑三 午의八、白四 申의一○、黑五 申의六、白六 午의七 黑七 未의六、白八 午의六 黑九 申의五 白一○ 申의四 黑一一 申의二 白一二 巳의八이되야 栅이되나 白은六手이니 問題가되지안는다 白이 卯의一六으로 이어진 까닭이다 그가 끈허대로잇섯스면 黑還이되야 白이 全滅이된다



(參考圖)

第十六回中等學校庭球聯盟戰

時日=六月十五、六、七、八의四日間
場所=惠化町普成AB코—트 明倫町中央佛專C코—트
◇出場校=儆新、大東、東星、培材、普成、養正、中東、中央、徽文(以上가나다順)
主催=京城私立中等庭球聯盟 後援 朝鮮日報社運動部

어느연지에도지지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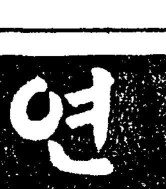
クロバー 구로바—

口紅 입술연지
입술을거칠게 안버서지는곳、안버서지는입술연지 六色 八○전 四○전

ホヽ紅 볼연지
豐富한色澤 十八色 四○전 五○전

各地一流化粧品店에잇습니다
東京·大阪 三葉商會

연주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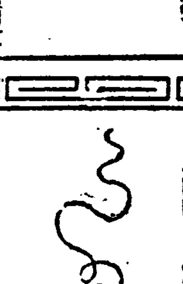


新發見
效力百中、服用容易、無痕完治
新製 『연주창專門藥』
當局許可名 第一 清化丸
●목과겨드랑其他의멍울 ●連珠狀의멍울 ●化膿된터질듯한멍울
結核性、梅毒性 辛苦하는男女에게 卄年來의名藥 許多한治療實例를자랑하는
藥價 七日分 一圓四十錢 廿一日分 四圓 (試用)
販賣所 京城藥局 京城府鍾路一丁目八七 (振替京城三七六七) 電話光③二三三四番

高級 アイスケーキ 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新品、中古品 (新品同樣品有함)
型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眼科
耳鼻咽喉科
(專門)
平壤府巡營里
南山醫院
醫師 金致九
(入院應需)

時代에適應한
最新强壯劑
特히 一般虛弱 神身過勞
美味芳佳 服用容易
榮養障碍、神經衰弱、腺病質、肺結核、肋膜炎、性的減退、缺落症、病後恢復期、食慾不振에特效
食慾을增進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用量 一回四—八cc宛 一日三回服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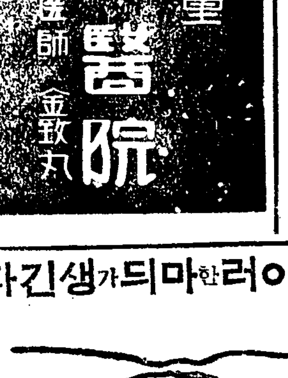
五○○cc 四、五○
製造發賣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平壤西門通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フェロトン (훼로톤)

淋病藥
淋疾은根治식혀라
웨淋疾은잘안낫는가

秘密病인까닭에
웨 淋疾은 낫기가어려운가하면 秘密病이기때문에 正當한治療를 밧고 治療上에 必要한 養生法을 嚴守치못함으로 가장治療하기쉬운急性의 治療期를노치고 病勢를 惡化케하는等 淋毒을後部로移行시켜서慢性이되는때문이다 慢性이되면 急性에 比하야 苦痛이 적음으로 大部分의患者는 苦痛이업스면 저절로 마음을녹코 治療를게을리하는것과 淋菌이 後部에 移行하기때문에 治療가 어렵고 治療가 오래끌게된다

尿道에마듸가생겨
慢性淋疾이되면 尿道의 一個所 又는數個所에 手足에、腫氣가낫든뒤와가튼 硬化한 멍우리 即 마듸가 생겨서 勃起하거나 狹窄하게된다
尿道가 狹窄되면 放尿後에 小便이 남어잇는듯한 感이잇서서 二三分後에 小量의 小便방울이 自然히 흘러나와서內衣를 더럽히게한다 그뿐아니라病勢가 더하면 小便의線이 가늘어지고 小便이두갈네로갈러서나오고 점점重하게되면 小便이充分히 나오지못함으로排尿時에아래배에 힘을줌으로 脫肛하게된다 高度狹窄에는 小便이全然안나오는일도 種種잇스며 이러케되면切開手術을하여야만된다

이러한마듸가생긴다



이러한마듸가생기는故로 小便이잘나오지안는다
(尿道狹窄圖)

可恐할 淋菌의毒力

男子의不姙症
淋菌때문에睾丸을 害치면一生 子種을 일허버려서 아해가안된다

女子의不姙症
지마는子宮疾患의九十%까지는 淋毒에依한것으로그結果不姙의 原因을지을뿐아니라 一生호안病人으로지내게되는일이적지안타 子宮內膜炎、나팔管炎、卵巢炎、그보다도더危險性이잇는子宮外姙娠의大部分은淋毒에依한것이다 또淋毒性關節炎때문에나면서부터不具者가되는것은 婦人에게가장만흔것이다

淋毒性류—마치스
淋毒이全身에미치는症狀으로서 나타나기쉬운것은 淋毒性류—마치스로 神經痛도誘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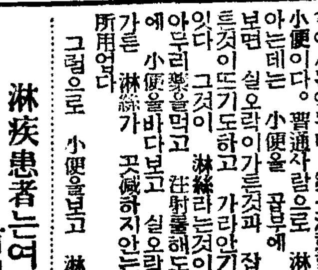
愛兒를장님으로
나면서부터장님이되는것은大部分이 母體의淋毒感染으로생기는것이며 또淋疾患者의兩親에게서天眞無垢한兒童에 그病毒이 感染되여 膿漏眼으로 失明케되는일이만타
其他淋菌이 血液中에 侵入할때에는 敗血症 心囊炎等을 일으키고結局은 죽엄의경을밟게되는일도잇다。
特히 結核性生殖器疾患例를들면 結核性睾丸炎、腎臟結核等의大部分이 淋疾로부터誘導된 은專門家가共通이 認定하는바로 놀랄만한淋疾의害毒이니罹病者는 一日이라도速히根本的治療를하라

最愛의妻에 感染된경우
尿道淋(消渴)을惹起하는것은勿論이여

淋疾患者는 如何한藥劑를 選擇할것인가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는 日本醫藥學界의 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해서 慎重審議한 結果그品位를定하야 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 또內務省試驗所에서 檢査封緘한藥劑가 我醫學界의指針이되고잇다 그럼으로 우리有田도락구의淋疾藥은 政府指定、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選定의日本藥局方收載도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해서 配劑한許可濟治淋劑이다 服藥해서 何等의副作用업는것이 本劑의特長이다

藥의有効無効는小便을보아알수잇다
淋疾患者는 여러가지 療法에 속아서는안된다。第一注意할것은 小便이다。普通사람으로 淋疾을 아는데는 小便을 곱부에 바다 보면 실오락이가튼것과 잡티가 트것이뜨기도하고 가라안기도해 잇는데 그것이 淋絲라는것이다。아무리藥을먹고 注射를해도곱부에 小便을바다보고 실오락이와 가튼 淋絲가 곳滅하지안는藥은 所用업다 그럼으로 小便을보고 淋絲가 업서지는藥을 먹지안으면안된다 藥이有効하면淋絲도減하고 알흔것도 업서지고 體도 끈치서全快의 目的을達하게 되는것이다



淋疾患者는여러가지廣告에속지말고 有田도락구專賣所를차지라

有田ドラッグ專賣所
京城郵便局前 龍山練兵町 平壤泉町二 釜山幸町一 群山驛前通 全州高砂町 光州本町三 木浦榮町二 大邱弓町 馬山京町三 麗水港 浦項本町 兼二浦本町 鎭南浦漢頭里 海州南本町 新義州櫻町 元山本町三 咸興軍營通一 羅南生駒町 興南上天機里